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려집니다(레위기 강해).

5.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추수감사절(10/13)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6. 빌립보서 3 장 14 절 (2024 년 9 월 성경 암송 구절)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37 장 (통 37)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7. 시편 29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365 장 / 찬 366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25 장 (통 359)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4:1-3 (p. 322)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으라
Stand firm in one heart in Christ Jesus

*찬 송 Hymn	310 장 (통 410)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 2: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고전 1: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 목회와 삶 || 아버지

저에게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한국에서 주일에 교회를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과 영상 통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손자 손녀와 대화도 나누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이야기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원이와 하성이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한 보따리 사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원이와 하성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국 생활을 하면서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약을 드시면서 큰 불편함은 없으시지만 최근에 파킨슨의 후유증인 섬망(delirium)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것을 잊어버리셔서 하루에 두 세번씩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아버지, 아들 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 "그럼 자식인데 보고 싶지!"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직접 보고 싶은 작은 소원 하나 들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레위기 19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레 19:2).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세상과 단절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日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가장 첫 번째 실천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레 19:3a).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보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본 받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하다'(kabad to honor)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 대상은 오직 부모(출 20:12; 신 5:16)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본 받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시작점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꼭 껴안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